

## 전남 타르 방제 장비 부족·인력 배치 비효율

# 자원봉사 왔다 그냥 돌아간다

### 신안 외딴 섬 지역은 손도 못대

전남 서해안 타르 방제 작업에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방제 도구 부족과 각 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인력·물품 활용 시스템 미비로 타르 방제 작업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외딴 섬이 많은 신안 도서지역의 경우 자원봉사가 전혀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타르 덩어리가 영광·함평·무안·신안군 등 전남 서해안 일대에 유입된 구랍 31일 이후 매일 5천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13일 현재 타르 제거 작업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5만5천357명. 이중 순수 민간 자원봉사는 1만9천575명으로 전체 방제작업 참여자의 36%에 달한다. 이밖에 공무원 1만689명, 군인 3천835명, 경찰 1천772명 등도 참가했다.

자원봉사는 밀려들고 있으나 바위나 암벽으로 이뤄진 무인도가 많은 서해안 지형의 특성상 효과적인 방제 작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접근이 쉬운 해안가에만 자원봉사자들이 집중 투입되면서 작업공간이 비좁아 하루 평균 5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되돌려 보내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신안군에는 12일 현재 자원봉사가

5천270명이 타르 제거 작업에 참여했지만 방제작업은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큰 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신안군의 섬 132곳 중 방제작업이 이뤄진 섬은 3분의 1인 45곳에 불과하다. 임자도·대노록도·자은도 등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거나 외딴 섬에는 자원봉사자 투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까지 6천800명의 자원봉

사가 다녀간 무안군의 경우 피해 면적 1천175ha중 암벽 등으로 이뤄진 해저면 확송리 등 일대 300ha 정도는 전혀 손조차 대지 못했다.

방제도구 부족도 문제다.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방제도구가 부족해 자원봉사자들이 방제복·마스크·장화·포대·도시락 등 방제도구를 직접 챙겨 임자도·대노록도·자은도 등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거나 외딴 섬에는 자원봉사자 투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에만 자원봉사

자가 물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생기고 있다. 또 각 자치단체 간 인력 활용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일부 자치단체는 넘쳐나는 자원봉사자들을 되돌려 보내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은 넘치고 있으나 이들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해 외딴섬이나 해안 절벽 등은 손도 못 대고 있다"며 "자원봉사자 관리 및 방제물품 보급 시스템 구축이 마땅,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ilee@kwangju.co.kr



지난 12일 신안군 지도읍 어의도 매골 해안에서 마을 이장 등 주민 2명이 대나무를 이용, 조약돌에 묻은 타르를 제거하고 있다. 어의도 등 신안지역 외딴 섬은 방제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전남 타르 피해 면적 여의도의 26배

### 제거작업 55,357명 참여

### 비닐포대 111만개 사용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에 따른 타르 덩어리가 구랍 30일 전남 해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타르로 인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또 타르의 오염에서 전남 해역을 구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노력과 방제도구 연일 계속되고 있다.

타르 유입으로 인한 피해 예상 어장은 신안, 무안, 영광, 함평, 진도 등 5개 시·군에 총 2만2천261ha. 여의도 면적의 26배다. 어업별로 보면 김 어

장이 390건 7천905ha, 마을어장이 319건 1만4천356ha 등이다.

타르 제거에 참여한 인력은 13일 현재 총 5만5천357명이며, 이들이 사용한 타르는 1천410t에 달한다.

해경 경비정 127척과 방제정 29척이 방제작업에 동원됐으며, 전남도와 각 시·군이 보유한 행정선 287대도 동원됐다. 타르 유입을 막기 위한 오일펜스는 목포의 5개 지역에 3천34m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 완도 5천40m 등 총 8천74m가 설치됐다. 타르를 담기 위한 비닐포대도 111만개나 사용됐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 가족 총격후 자살 美 교포

### 이민우 前총재 셋째 아들

부인과 딸에게 총격을 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50대 로스앤젤레스 한인 이민우 전 신민당 총재의 아들인 이민우 전 신민당 총재의 아들인 이민우 전 총재의 셋째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로스앤젤레스 한인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주택에서 부인과 딸에게 총격을 가하고 자살한 50대 한인 교포는 이상호(54)씨로, 이미 고인이 된 이민우 전 총재의 셋째 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로스앤젤레스 세리프국은 10일 오전 7시30분(현지시각) 로렌하이츠에 사는 이씨가 자신의 집

에 있던 총으로 부인(50)과 딸(26)에게 총격을 가한 뒤 스스로 총을 쏘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이씨 가족과 가깝게 지내온 한 지인은 "숨진 이씨는 이민우 전 신민당 총재의 아들로 안다"면서 "그는 평소 아버지 이 총재인 것을 거의 알리지 않고 지내왔다"고 말했다. /연립뉴스

**전립선 비대증-KTP 레이저**  
신경 요관결석·총격파 쇄석기  
남성수술클리닉, 여성 요실금 수술  
전화 (062) 233-5119  
주소 신안지구 중앙로 25번 4번길 38호

## 잇단 도심 날치기 ‘불안’

### 광주 최근 7건 발생

새해 벽두부터 광주 도심에 2인조 날치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경찰은 특진을 내걸고 비상근무에 나서는 등 날치기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날치기범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활개를 치고 있다.

13일 오후 2시1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예술의 거리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성 2명이 현금 4만원과 신분증이 들어있는 양모(여·75·북구 계림동)씨의 손지갑을 빼앗아 달아났다.

앞서 지난 12일 새벽 0시 30분께 남구 진월동 C형면 앞길에서는 승용차를 탄 2명의 남성이 귀가 중이던 최모(여·51·남구 진월동)씨의 통장 2개와 인감도장 등이 든 손가방을 뺏아채 도주했다. 또 구랍 27일 새벽 0시 25분 광산구 산월동 봉산중학교 앞길에서 박모(여·41·광산구 월계동)씨가 오토바이를 탄 2명의 남자에게 현금 10만원과 상품권 20만원 등이 든 손가방을 날치기당하는 등 지난해 말 날치기 사건이 7건이나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스쿠터 종류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용의자를 쫓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용의자의 인상착이가 각기 달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특히 용의자 검거자에게 1계급 특진을 내걸고 비상근무를 하는 등 검거에 나섰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종형 기자 gilee@kwangju.co.kr

### 나주 김 가공 공장 불

지난 12일 오전 6시 30분께 나주시 삼포면 최모(37)씨의 김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내부를 태우고 약 1시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1층짜리 공장 264㎡ 가운데 일부와 공장 내 기계 및 김 등이 불에 타 9천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공장 옆 숲속에서 자던 최씨 부부는 불이 나자 긴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광주서부경찰 ‘풍수 처방?’

### 피의자 자살 등 액운 잇따르자 대나무 심기로

직원 구속과 피의자 자살 등으로 우환에 휩싸인 광주서부경찰이 액운을 물리치기 위해 청사 담장에 대나무를 심는



등 사고도 발생했다. 급기야 서부경찰은 청사 뒤편 담장 앞에 액운을 떨쳐낼 대나무 20그루를 심기로 결정했다. 김철성 서장의 지시에 따른 이번 결정은 청사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S골프연습장 때문이다.

서부서 2층 서장 집무실이 골프연습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어 연습장에서 골프공을 칠 경우 골프공이 서부서 방향으로 곧바로 날아 온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7월 김 서장 취임 당시 한 지인(스님)이 청사의 위치와 시설 등을 둘러본 뒤 "골프연습장 때문에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형 기자 gilee@kwangju.co.kr



다들 건축·건설사 KCC  
**DS건설(주)** KCC그룹, 현직 10여 년 경력  
KCC형호, 시스템형호 생산·시공  
KCC정호(914)·9221·9222 / KCC주택(9337)·9338  
**(주)본드나리** KCC 본드나리  
베트남·대만  
실리콘·방수제·접착제·타이프  
▶ 본부(02)2101-3002 ▶ 광주(06)3271-9911

재혼 문제 말다툼 끝 주먹다짐

○광주북부경찰은 13일 재혼 시기를 놓고 전처와 말다툼 끝에 주먹다짐을 한 김모(47·광주시 북구 양산동)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검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께 광주시 북구 용두동 J아파트 전처 양모(40)씨의 집에서 재혼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비 끝에 발로 가슴을 차고 뺨을 때리는 등 서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11월 성격 차이로 아내와 이혼한 김씨는 자신의 점퍼 등을 가지러 갔으나 아내가 옷을 주지 않고 말을 듣지 않자 주먹을 휘둘렀다고.

○김씨는 경찰에서 "아내에게 올해 안에 재결합하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났었다"고 진술.

/이종형 기자 gilee@kwangju.co.kr

**Gate Way**  
www.gateway.co.kr  
GATEWAY UNIVERSITY

- ▶ **수업 일기부** : 학습내용을 정리하고, 수업일기, 발표보고서 등 교내·교외 활동을 기록
- ▶ **수업 지원 시스템** : 수업시간에 활용된 자료, 교내·교외 활동을 기록
- ▶ **자주 쓰는 편지** : 학습내용을 정리하고, 수업일기, 발표보고서 등 교내·교외 활동을 기록
- ▶ **수업 노트** : 수업내용을 정리하고, 수업일기, 발표보고서 등 교내·교외 활동을 기록
- ▶ **자기주도 학습** : 수업내용을 정리하고, 수업일기, 발표보고서 등 교내·교외 활동을 기록

동신대학교 학생부